

기타다케산

공원의 궁지

기타다케산은 후지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북쪽 또는 남쪽에서 바라보면 해발 3,193m 의 이 산 정상은 웅장한 피라미드 모양을 합니다. 산 동쪽의 산중턱에 위치한 높이 600m 절벽, 기타다케 베트레스(Butress, 베티기 위한 부벽)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암벽으로 많은 등산가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깁니다. 기타다케산은 후지산보다 580m 정도 낮지만 산림한계선은 훨씬 높아서 놀랍게도 2,700m 높이에 다다릅니다. 산의 정상부는 꽃이 만발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다케산의 유명한 고산 꽃밭은 7 월과 8 월에 가장 다채로운 색으로 물듭니다.

산정상에서는 일본에서 각각 최고 높은 산과 세번째 높은 산인 남동쪽으로 후지산, 남쪽으로는 아이노다케산과 북서쪽으로는 센조가타케산, 북쪽으로는 가이코마가타케산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기타다케산은 지각 변동으로 연간 약 3mm 씩 융기하기 때문에 약 20 만년 후에는 후지산 높이를 따라잡겠지요!

전통적으로 기타다케산을 오르는 등산가들은 히로가와라 등산 입구(해발 1,550m)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칸바사와 하천을 따라 나있던 지름길이 2022년 다리가 떠내려가서 폐쇄된 후, 현재는 숲 사이를 지나가는 가장 긴 거리의 루트밖에 없습니다. 시라네오이케 산장(해발 2,200m)부터는 정상까지 3 개 루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7 월에 들어서도 눈에 덮인 계곡을 직접 등산할 수 있는 루트도 있습니다.